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의 끝은 어디인가?

이상재 <people529@hanmail.net>

2008년 8월 19일 오전 11:01

강제단속추방의 끝은 어디인가?

1. 마릴린(Marilyn Concepcion, 여, 46세)씨는 1998년에 한국에 입국해 현재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입니다. 노엘(Noel Arenas, 남, 45)씨 또한 현재 미등록체류 상태입니다. 이들은 지난 8월 16일, 오후 6시쯤 부천 강남시장 근처 노래방에서 동료들과 생일잔치를 하던 중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에게 단속되어 현재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2. 단속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단속반원의 신분증 제시나 권리 고지 등 어떤 것도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입국직원들에게 불법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작업장이나 길거리 단속이 아닌 일반 노래방까지 들어온 것은 출입국직원들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분명합니다. 그 과정 중에 노래방에 대한 수색 영장은 물론 노래방 주인에 대한 사전 동의나 이해가 있었을지 의심이 갑니다.

3. 또한 단속과정을 살펴보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과 함께 있었던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화를 하러 나갔던 동료가 노래방 입구에서 출입국 직원들에게 본인들이 노래를 부르던 방을 손으로 가리키고 간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출입국 직원에게 정보를 준 그 필리핀 동료 역시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친구를 팔아 자신은 체류를 보장시키는, 2년 전 베트남 사람을 일명 프락치로 활용했던 반인간적인 사례의 반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때 같은 필리핀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던 노래방을 지목했던 친구는 친구들의 전화를 일체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되지 않은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노래방 안에 15명이 있었고, 현장에서 여성4명과 남성(노엘) 1명이 단 **◆ 槌품享음求 ◆**

4. 단속과정은 둘째 치고라도 마릴린씨는 현재 투병중입니다. 지난 4월 17일 몸이 좋지 않아 찾아간 서울적십자병원에서는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과 “만성 자궁주위조직염 및 골반 연조직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 병원에서 상기 진단의 내용으로 ‘자궁적출수술’을 하려했으나 당시 전신 마취 후 호흡부전의 위험성이 있어 당장에 수술을 어렵고, 수술을 위해 약물치료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마릴린씨가 원하는 것은 하던 치료를 계속해 건강한 몸으로 고향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권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5. 단속된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천공항출입국직원에게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은 현장의 단속반원들이 영장대신 인신을 단속차량에 태운 다음에 긴급보호서를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과 평등권의 침해입니다. 또한 정식적인 보호명령서와 강제퇴거 명령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강제퇴거 의의를 신청하거나 본인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고지가 있었어야 하는데, 마릴린씨는 그런 것들을 고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직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대신 인권단체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6. 마릴린씨의 이야기를 듣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 단체가 방문을 해서 담당자를 만나 정황을 이야기 하고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일시보호해제를 요청했지만, 진단서를 보았더라도 달라질 상황은 없다며 수요일(8월 20일)에 강제퇴거 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단속된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 한해서라는 말을 반복하며, 최소한 진단서를 가져갔으면 병원 담당의사에게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해보는 최소한의 조사 과정도 없이 자신이 의사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를 계속 진행하는 것 보다 불법체류가 먼저라며, 치료를 위한 보호일시해제가 아니라 불법체류를 계속하기 위한 일시보호해제라며 다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본 단체 실무자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7. 지난 해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이후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인권보호를 강화한다며 일시보호해제 사유를 폭넓게 운영해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시보호해제 사유 중에서 치료 부분에 대해 산업 재해 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환자들이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8. 본단체 실무자들이 마릴린을 면회하고 돌아오는 길에 노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속된 이후 출입국직원들에게 불려가 구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맞아서 앓아 있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노엘의 증언에 의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입국직원들이 본인들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단속되지 않은) 다른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증언에 의하면 단속과정에서 노래방 문을 열 때 한꺼번에 도망가는 과정에서 출입국 단속반 중에 누군가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함께 잡혀간 여성들에게 화풀이를 하지 못하고 유일한 남성이었던 노엘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9. 만에 하나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수요일(8월 20일)에 출국될 예정입니다. 그들이 출국하고 나면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마릴린씨의 경우에는 치료중인 병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10.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한 다음날 당초 출국예정일이던 8월 20일보다 하루 앞당겨 오늘(8월 19일) 오전에 함께 단속되었던 필리핀인 5명 전원에 대하여 강제퇴거를 진행 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천공항출입국 담당자와 통화해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국을 시키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무자비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이후 이주인권연대를 포함한 지역 단체들과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유해 주십시오.